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확산 대책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우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스마트 팜 확산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장보급 초기단계에 있는 스마트 팜 사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투자와 인프라를 확충하여 스마트 팜의 확산속도를 가속화하고, 향후 수출산업으로까지 성장토록 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

(스마트 팜 개념 및 의의)

스마트 팜은 ICT를 비닐하우스·축사·과수원 등에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농장으로 노동력·에너지·양분 등을 기존 관리 방식보다 덜 투입하고도 생산성과 품질향상이 가능

그동안 우리 농업·농촌은 대외적으로는 시장개방, 내부적으로는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겨울철 긴 농한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토지·노동의존적인 전통농업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 전인이 곤란하며, 기술집약적인 첨단농업으로의 조속한 전환 시급 따라서, 우리나라가 가진 세계적 수준의 ICT 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 팜 확산을 통해 우리 농업의 약점 극복과 국제경쟁력 제고는 물론 자본·기술집약적인 미래농업 구현 가능

(성과 사례) '14년 스마트 팜 도입 이후 가시적 성과 확산

전주에서 국화를 재배하는 농가는 스마트 팜 도입 후 생육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주어 재배 회전율이 40% 향상되면서 생산량과 소득 모두 40% 정도 증가

\* 재배 회전율 : (도입전) 2.5회전 → (도입후) 3.5 / 생산량 : 13만본(10a) → 18

전국에서 참외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성주군의 한 농가는 3년 스마트 팜 도입 후 생산량이 5톤에서 6.5톤(1동, 200평 기준)으로 30%, 매출액도 30%(10 → 13백만원) 수준 증가

먼저, 시설원예, 축산, 노지 등 각 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스마트 팜의 현장 확산을 한층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설원예분야는 시설현대화와 연계하여 '17년까지 현대화된 온실면적(10,500ha)의 40% 수준인 4,000ha를 스마트 온실로 업그레이드한다. 온실유형과 재배되는 작물 특성에 따라 단동간편형, 연동복합형, 첨단수출형으로 구분하여 모델개발과 확산에 나선다. 예를 들어 참외, 수박과 같이 소규모 단동 비닐온실이 재배에 적합한 작물은 측창자동개폐 등 비교적 간편한 원격제어설비만 갖추도록 하여 농가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고, 파프리카·토마토와 같이 대규모 자동화 온실 설비를 통해 생산성과 품질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작물은 복합·지능형 제어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방식이다. 각 유형별 선도 농가 중심으로 스마트 팜 도입 성과를 창출해 인근 농가로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축산분야는 '14년 양돈을 시작으로 '15년 양계 등

단계적으로 적용대상 축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16년부터는 젓소·한우 등 대가축의 생산성 향상에 핵심이 되는 로봇착유기·자동포유기 등을 일괄 지원하는 스마트 축사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17년까지 축산분야 전업농의 10% 수준인 700호까지 스마트 축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보급 초기단계인 노지의 스마트팜 사업화는 규모화 된 과수원을 중심으로 병충해 예찰과 관수제어 장비를 보급하여 비료, 농약 등 생산요소를 적기·적량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가목에도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7년까지 목표는 규모화 농가의 25%수준인 600여 농가까지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산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과 협업하여 주산지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 팜을 우선 보급한다.

수출재배단지에서 ICT 융복합 첨단온실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지원예산을 확대('15 : 246억원 → '16안 : 454)하고, '16년부터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예산('16안 : 508)의 60% 수준을 양액기, 자동개폐기, 시설복합환경제어시설 등 ICT 시설·장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대상 : 공정육묘장, 제습기, 보광 등, 장기성필름, 예냉·저장·선별시설, 관수시설, 양액재배시설, 시설복합환경제어시설, 환풍기 등

또한, 스마트 축사를 희망하는 시설노후 농가에 대해서도 축사시설현대화 자금을 우선 지원하여 축사시설을 ICT 적용에 적합하도록 개선한 후, 스마트 축사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제품의 상용화 수준이 낮아 고가의 외국산 제품 점유율이 높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비

용·고효율 한국형 스마트 팜 모델 개발과 보급에 나선다.

스마트 온실의 경우 '14.8월부터 농촌진흥청, 출연연, 민간기업 등 관련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하여 모델 개발을 추진 중이며, 참외, 수박재배용 단동간편형 스마트 온실모델은 올해 6월 개발이 완료되어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실증시험 중에 있는데, 딸기·오이 등에 적합한 연동복합형은 하반기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토마토 등에 적합한 수출첨단형은 '16년까지 모델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하드웨어 국산화와 함께 품목별 최적 생육정보를 분석하여 현장에 제공하는 최적생육관리 소프트웨어 국산화도 진행 중이다. 우선 금년 말까지 우수 농가의 환경관리 노하우를 분석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16년부터는 토마토를 시작으로 '17년에는 파프리카, 국화, 딸기 등 작물별 최적 생육관리 소프트웨어를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외국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8월부터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관련기관 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 (농식품부) ICT정책 총괄, (농진청) 작물별 최적생육환경분석, (강원혁신센터) 생육정보 취득기술개발, (세종혁신센터) 스마트 팜 환경정보 수집·분석,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 빅데이터 수집체계구축 등 역할 분담

**스마트 팜 구성기기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병행한다.** 그동안 현장에서 센서, 제어기 등 스마트 팜 부품이 업체별로 규격이 다르고 호환성이 미흡하여 운용과 유지보수가 어렵고 단가가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년 7월 농촌진흥청, 관련기업들이 참여하여 센서

13종, 온실제어기 9종에 대한 표준규격(안)을 마련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동 표준규격(안)을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단체표준으로 등록하여 관련기업들의 자율적 활용을 유도하는 한편, '17년부터는 스마트팜 구성기기에 대한 표준·규격 적합성을 검증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스마트 팜 구성기기의 품질과 신뢰성을 보다 높일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 팜 전문인력 육성, 농가 실습교육과 사후관리(A/S) 강화 등 스마트 팜 운영농가의 성과제고를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도 강화한다.**

'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농업 생산성을 가진 ICT 전문 농업인 8,000명, 농진청·도농업기술원·시군기술센터 등 현장밀착형 스마트 팜 지도인력 200명, 전문 컨설턴트 120명을 적극 육성한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도 농업기술원에 마련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8개소를 통해 수준별\*로 체험형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작년부터 운영 중인 기술 지원 중심의 SNS 컨설팅\*을 생산, 유통, 수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참여농가들이 선도농가·전문가 등과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 (초급) 실습형 교육농장(11개소), (중급) 첨단실습장(3개소), (고급) 토마토대학 운영(7월~11월), 해외전문가 초청교육 등

\* 농업인이 SNS를 통해 현장으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품목별 기술분야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답변('14 : 6 품목 → '15.7월 : 20품목)

또한, 농진청·도농업기술원의 작목별 전문 지도인력을 대상으로 ICT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네덜란드·이스라엘 등 시설원에 선진국과도 전문가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 ICT업체의 규모가 영세하여 전국적인 A/S망을 갖추기 어렵다는 현장의 애로사항

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간 역할을 나누어 해결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단순 고장사항은 ICT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현장지원센터\*에서 담당토록 하고, 구조적·본질적 문제는 시설원예융복합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생산기업이 직접 A/S를 지원해 주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도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시군기술센터, ICT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교육, 홍보 및 스마트팜 시설·장비 AS 지원(8개소 : 경기, 강원,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우성하이텍, 그린씨에스, 동우 등 국내 주요 복합환경 제어기 생산업체 참여

스마트 팜 기자재와 농업용 ICT 기기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R&D부터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ICT기업을 대상으로 기획 단계부터 현장으로 해소 중심의 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R&D지원\*을 확대('15 : 86억원 → '16 : 149)하여 관련기업을 육성해 나가는 한편, 한국형 스마트 팜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전문기관(aT 등), IT기업(KT, SKT 등) 및 스마트 팜 환경제어기 생산기업 등으로 “스마트팜 수출협의회”를 구성, 해외시장 정보조사와 수출유망 국가를 발굴하는 등 수출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ICT 융복합 기술개발(첨단생산기술개발의 내역사업)

농식품부 관계관은 “이번 대책을 통하여 스마트 팜의 신속한 현장 확산과 시장 확대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ICT 연관 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과 해외시장 진출 등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 HPAI 등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예방을 위한 한-러간 공동연구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국가간 전파가 가능한 동물질병의 방제를 위한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한국-러시아연방 동물질병 공동연구를 위한 기술협의회'가 10월 22일 러시아연방 동식물위생감독청(FSVPS)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 HPAI 등 국가재난형 질병의 반복적 발생에 따라 주변국가와의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 주변국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국제협력 지역 확대에 노력하여 왔다.

이번 기술협의회는 우리 측의 대러시아연방 공동연구제안에 따라 러시아연방 동식물위생감독청의 수용으로 이루어졌다.

- 러측 의향서(Protocol of Intention) 체결 제의 및 한국 대표단 러시아 방문시 의향서 체결 및 기술협의회 개최 합의 (襯.10.13., 러측 방한에 따른 양자회의)

이번 기술협의회에 한국 대표단은 백종호 동식물질병연구부장을 수석대표로 동물질병연구 실무담당자 등 총 5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의 구제역 및 HPAI 발생현황과 연구성과 등을 소개하고, 앞으로 추진될 공동연구의 방향과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향후, 양국 대표단은 협력사항에 대한 의향서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번 기술 협의회에서는 러시아 동물질병 관리·연구 담당 최고기관인 동식물위생감독청과 양 국가의 동물질병 연구기관 간 협력을 위한 의향서(Protocol of Intentions)를 체결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간 전파 가능 동물질병관련 공동연구 기술협의회 개최를 계기로 북아시아-유럽에 이르는 지역의 동물질병 연구의 단초 마련과, 나아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질병 연구분야에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다.

◆ 국가간 전파가능 동물질병관련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기술협의회 추진 경위

- 한국 수석수의관(CVO)를 통한 한-러 공동연구 제안(襯.3)
- 제2차 한-러 농업협력위원회(襯.5., 모스크바) 동물질병분야 협의
  - 러측 '동물질병 공동연구 기술협의회' 개최 제의
- 한국 기술협의회 개최 합의 및 양해각서(MOU) 체결 제의(襯.8.)

## 농림축산검역본부

### 철새주의 경보 '도래단계' 발령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겨울철새의 도래가 임박함에 따라 가금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10월 6일부로 「철새 조기 경보시스템」을 통해 철새주의 경보(도래단계)를 발령하였다.

철새 조기경보 시스템은 농가에서 가금류와 철새가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국립 생물자원관)와 검역본부의 철새 이동 정보를 이용하여 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이다.

검역본부는 '도래단계' 발령에 따라 가금 농가와 지자체에 주요 철새 도래지 출입 자제, 철새 군집 지역과 가금 농가 간 이동 경로에 소독시설 설치, 가금 농가 및 관련차량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철새가 가금 농가에 일정 반경 내 접근 시 자동으로 농가와 지자체에 방역조치 강화 알림문자가 발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15.12월).

앞으로 철새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조하여 철새의 이동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농가 등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한 가을 여행을 위한 식중독 예방 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단풍놀이, 지역축제 등 각종 야외 나들이가 많은 가을철에 나들이 도시락 준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가을철은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선선하지만 낮 동안 높은 기온에 식중독균이 잘 증식할 수 있어 식중독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계절별 식중독 평균 발생건수(274건/6,561명) : 봄(3~5월) 63건/1,962명, 여름(6~8월) 90건/2,366명, 가을(9~11월) 67건/1,326명, 겨울(12~2월) 54건/907명  
도시락 등 나들이 음식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김밥 등 도시락을 준비할 때에는 조리 전·후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 김밥은 밥과 재료를 충분히 식힌 후에 만들고, 도시락의 경우에는 밥과 반찬을 식힌 후 별도 용기에 담아야 한다.
-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10℃ 이하에서 보관·운반하고, 햇볕이 닿는 차량 내부나 트렁크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 식사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거나 물티슈로 닦아야 한다.
- 마실 물은 가정에서 미리 준비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으며 약수터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공



인기관의 먹는 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확인하고 음용한다.

- 남은 음식과 음료수는 장시간 이동 중 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집으로 다시 챙겨와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는 음식물 취급과 섭취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건강하고 즐거운 가을 여행이 될 수 있다며, 평소 식중독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생활화를 당부하였다.

식중독 예방요령은 식중독예방홍보사이트(www.mfds.go.kr/f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 ‘AFACI 축산프로그램 연례평가회’ 라오스서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 회원 나라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가축유전자원의 생산성 향상과 잠업 기술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AFACI 축산프로그램 연례평가회’를 10월 5일부터 9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었다.

먼저, 가축유전자원 사업 생산성 향상 평가에는 총 11개 회원 나라가 참여하여, 나라별 1단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결과를 평가한 뒤, 다음 단계

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AFACI 축산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몽골,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총 11개국이며, 아시아 지역 축산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2013년부터 각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방글라데시는 아직까지 개량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북부희색소에 대해 2014년 지역품평회를 개최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는 사업을 수행했다. 인도네시아는 재래염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은 축산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관계자와 농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양잠 분야는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태국, 베트남, 5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양잠 생산성 향상을 공동의 목표로 2013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왔다.

베트남의 경우 아직까지 개량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뽕나무 품종 육성을 통해 베트남 지역에 알맞은 우수한 뽕 품종 육성사업을 수행했다.

태국은 양잠 생산성 향상을 위해 누에사육 표준 잠실, 누에사육기술, 뽕나무 재배와 실크의 부가 가치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주관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이상재 축산생명환경부장은 “앞으로도 한국의 축산분야 선진기술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등 아시아 농업기술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국립축산과학원

### 축산홍보관 개관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 국립축산과학원은 우리나라 축산 기술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자리에 볼 수 있는 축산홍보관을 10월 6일 개관했다고 밝혔다.

축산홍보관은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전북 완주) 1층에 전체 면적 336㎡ 규모로 지어졌으며, '축산의 변화', '새로운 시작 행복한 시대', '희망축산'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했다.

'축산의 변화'에서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문헌에 기록된 가축 사육과 개량의 역사, 국립축산과학원의 주요 연구 성과를 디지털 액자로 소개한다.

'새로운 시작 행복한 시대'에서는 가축 사양 표준 활용과 축산물 가공 기술과 함께 개량을 통해 만든 한우, 돼지, 말, 닭, 젓소 품종을 실물 모형과 영상으로 볼 수 있다.

'희망축산'은 미래 우리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다. 전자방명록, 복제동물 만들기, 각종 축산 프로그램 시연으로 쉽게 축산 기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홍보관 관람은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과 전화(063-238-7135)로 미리 예약한 뒤 이용할 수 있다.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류성렬 기획조정과장은 "축산홍보관은 우리나라 축산 기술의 발전 과정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 농가와 관련 분야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배움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 축산물HACCP 토탈 콜센터 구축·운영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 이하 인증원)은 '축산물HACCP 고객들(민원인)의 편의 및 만족 제고를 위해 고객상담 대표번호(☎1800-5200)를 신설하고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원인이 인증원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축산물HACCP관련 전화 상담시, 통화대기 및 부재시 예약전화를 남길 수 없었고, 본·지원 간 내선 연결이 불가하여 통화 종료 후 민원인이 해당 본·지원으로 다시 전화연결을 해야 하는 등 여러 불편사항이 있어왔다.

이번 콜센터 구축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본·지원 통합 고객상담 대표번호로 일원화(☎ 1800-5200) 하였고, 업무 담당자별 통화분배가 가능해졌으며, 부재중일 땐 예약 전화번호를 남길 수 있게 되었다.

콜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800-5200로 하면 된다.

이용방법은 안내멘트에 따라 본원은(관할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1번, 중부지원은(관할지역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2번, 영남지원은(관할지역 :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3번, 호남지원은(관할지역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4번, 다시 듣기는 0번을 눌러 필요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고객만족센터장 정은실 팀장은 "콜센터를 통해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축산물HACCP관련 모

든 정보를 최대한 빠르고 친절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것”이라며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전문포털 eKAPePia,  
축산 바로 알리기 연구회와  
연계 공유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영)은 ‘축산 바로 알리기 연구회’의 발표 자료를 축산전문포털 사이트인 eKAPePia(www.ekapepia.com)를 통해서도 제공한다고 10월 7일 밝혔다.

‘축산 바로알리기 연구회’(www.livestocklove.or.kr)는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최윤재 교수가 주축이 되어 2014년 7월 발족한 연구회로 축산관련 단체, 연구기관, 학계에서 참여해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연계·공유를 통해 eKAPePia에 추가될 자료들은 연구회에서 주로 생산하는 축산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기 위한 발표 내용들이다. 연구회 자료는 eKAPePia 축산정보 메뉴에 등재되며, 이용자들은 통합검색 기능을 활용해 발표 자료의 첨부파일 내용까지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된다.

허영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일일 1만 8,000여 명이 방문하는 eKAPePia에 축산 바로알리기 연구회의 자료가 연계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축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더 폭넓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이원일 셰프와 함께 하는  
어린이 일일 농산물직거래  
서포터즈 체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10월 15일에서 16일까지 양일간 양재동 aT센터 앞 광장에서 ‘농산물 직거래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aT센터에서 열린 ‘2015 농산물 직거래·로컬푸드 페스티벌’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며,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방문객이 로컬푸드 직매장과 제철꾸러미 업체들이 준비한 우수 농산물과 다양한 직거래 방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팝업스토어 운영 첫 날인 10월 15일에는 미래의 농산물 소비자인 어린이들 30여 명이 농산물 직거래 일일 서포터즈 체험에 나섰는데, 한식전문 이원일 셰프도 현장에 함께하여 어린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직접 준비한 로컬푸드 음식을 나누었다.

aT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접하기 어려웠던 도심 소비자들에게 팝업스토어가 농산물 직거래를 경험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를 바라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행복한 만남’을 주제로 펼쳐지는 농산물 직거래·로컬푸드 페스티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 오리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2014. 1. 1 ~ 2015. 10. 27

연번	영업종류	영업소명칭	영업소주소	위반농산물명칭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	처분권자
1	식품접객업	갓바위산골순두부보쌈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22길 63 (신천동)	오리고기	중국산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2014. 01.21	표시 변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장
2	식품접객업	해궁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향11길 46-5	오리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독일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독일산으로 혼동우려 표시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으로 혼동우려 표시 중국산 훈제오리의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우려 표시	2014. 04.09	표시 삭제 및 변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임실사무소장
3	식품접객업	착한오리	강원도 원주시 개운로 123 (개운동)	오리고기, 배추김치	중국산 훈제오리와 국내산 배추와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함.	2014. 05.13	표시 변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원주사무소장
4	식품접객업	엘리스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진흥로 13	오리고기	중국산 훈제오리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	2014. 09.01	표시 변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강진 완도사무소장
5	식품접객업	해마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로84	오리고기	중국산 훈제오리고기를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오리훈제(국내산+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함.	2014. 10.02	표시 변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서귀포사무소장
6	식품접객업	광주푸드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169번길 24-1 (월전동)	오리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업소에서 미국산 등 수입산 닭고기와 중국산 오리고기(훈제), 독일산 등 수입산 돼지 삼겹살 등을 이용하여 업소에서 각각 메뉴로 조리하여 위탁급식 손님들에게 제공 판매하면서 업소 원산지 표시판에 닭고기, 오리고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	2015. 01.13	표시변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
7	식품접객업	착한돼지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0-33 (산본동, 대원프라자빌딩)	오리고기, 돼지고기	중국산 오리훈제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할 우려 표시, 스페인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를 캐나다산 등 수입산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2015. 03.31	표시변경, 표시 삭제 및 변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장
8	식품접객업	착한돼지(상록수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83 (본오동주상복합) 2층	오리고기, 돼지고기	중국산 오리훈제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할 우려 표시, 스페인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를 캐나다산 등 수입산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2015. 04.01	표시변경, 표시 삭제 및 변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장
9	식품접객업	착한돼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고개로 847번길 72 (논현동)	오리식육 제품	중국산 오리훈제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	2015. 04.01	표시변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장
10	식품접객업	착한돼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489번길 10 (구월동, 프라자시티)	오리식육 제품	중국산 오리훈제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	2015. 04.01	표시변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장
11	식품접객업	착한돼지(안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길 63 (고잔동, 상아프라자)	오리고기, 돼지고기	중국산 오리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독일산 등 돼지고기를 멕시코로 원산지 거짓 표시	2015. 04.01	표시변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장